

베이스 드럼 연주법에 관한 연구

한호석, 김대승*, 조태선**,

KMI실용음악학원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hanhoseok@naver.com

**entheos@chungwoon.ac.kr

Study on the bass drum playing method

Ho-Seok Han, Dae-Seung Kim*, Tae-Seon Cho**,

KMI Music Academy

*Dept of Applied Music, Choongwoon University

**Dept of Applied Music, Choongwoon University

요약

베이스 드럼은 스네어 드럼, 하이 햱과 함께 세트 드럼에서 기본 비트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베이스 드럼의 여러 주법에 대해 연구하고 이해하여 연주자에게 가장 잘 맞는 주법을 찾아 연주 시 음악적, 기교적으로 도움이 되려는데 목적이 있다. 다양한 스틱 그림 법과 같이 베이스 또한 연주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한 번만 연주하는 싱글 스트로크의 방법에는 힐 업 주법과 힐 다운 주법이 있으며, 두 번을 연속으로 치는 더블 스트로크의 방법에는 슬라이드 주법이 있다. 슬라이드 주법은 곡의 템포가 빨라졌을 경우 빠르게 두 번을 밟는 방법으로 마치 발이 폐달을 밀듯이 연주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그 종류에는 기본 슬라이드 주법, 역 슬라이드 주법, 힐 토 주법이 있다. 싱글 스트로크의 힐 업 주법은 뒤꿈치를 떼고 다리 전체를 사용하여 연주하는 주법이며 힐 다운 주법은 뒤꿈치를 붙이고 발목을 주로 사용하여 연주하는 주법이다. 더블스트로크 슬라이드 주법은 모두 힐 업 주법의 기본자세에서 시작하며 기본 슬라이드 주법은 발을 앞으로 밀듯이 두 번 연속으로 치는 방법이고 역 슬라이드 주법은 발을 뒤로 밀듯이 두 번 연속으로 치는 방법이다. 힐 토 주법에서 힐이란 뒤꿈치는 뜻하고 토란 발가락을 뜻한다. 힐 토 주법은 뒤꿈치부터 중족부, 전족부까지 발의 모든 부분을 사용한다. 본 논문은 베이스 드럼의 다양한 연주법에 대해 분석하고 각각의 난이도와 움직임, 차이점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주자마다 사용하는 주법이 다르겠지만 다양한 주법들을 이해하고 연주자에 더 잘 맞는 주법을 선택한다면 한층 더 발전된 연주 능력을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

1. 서론

베이스 드럼(Bass Drum)은 세트 드럼에서 가장 낮은 소리를 연주하며 스네어 드럼(Snare Drum), 하이 햱(Hi-Hat)과 함께 드럼의 기본 비트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틱으로 연주하는 세트 드럼의 다른 구성과 달리 기본적으로 오른쪽 다리를 사용해 베이스 드럼과 연결된 폐달을 밟아 연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베이스 드럼을 싱글 스트로크로 연주하는 주법은 힐 업 주법, 힐 다운 주법이 있으며 더블 스트로크로 연주하는 주법은 슬라이드 주법이 있다. 슬라이드 주법은 곡의 템포가 빨라졌을 경우 사용하는 주법으로 발이 폐달을 밀듯이 연주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그 종류에는 기본 슬라이드, 역 슬라이드, 힐 토 주법이 있다. 또한 템포가 빨라졌을 경우 외 트레몰로, 콤비네이션 등 다양한 드럼 기법과도 응용되기 때문에 드럼 연주자로써 필수로 습득해야 한다. 연주자 개개인마다 그림 법, 연주 자세 등이 다르

므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주법을 찾고 연습해야 최대한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베이스 드럼의 여러 가지 주법에 대해 연구하고 이해하여 연주자에게 가장 잘 맞는 주법을 찾아 연주 시 음악적, 기교적으로 도움이 되려는데 목적이 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주법을 강제적으로 반복하여 습득하다보면 근육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더 이상 연주 능력이 향상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주법을 찾아 연습하고 습득한다면 연주자로써 한층 더 발전된 연주 능력을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

2. 본론

베이스 드럼은 세트 드럼에서 가장 낮은 소리를 연주하며 스네어 드럼, 하이 햱과 함께 드럼의 기본 비트를 만들어낸다. 세트 드럼의 다른 구성악기들은 스틱으로 연주하지만 베이스 드럼은 베이스 드럼에 연

결되어 있는 페달을 사용해 오른쪽 다리로 연주한다. 페달에는 스프링이 연결되어 있어 연주자에게 맞는 텐션으로 조율한 뒤 연주한다. 베이스 드럼의 연주법은 싱글 스트로크, 더블 스트로크로 나눈다. 싱글 스트로크에는 힐 업, 힐 다운 주법이 있고 더블 스트로크에는 슬라이드 주법이 있다. 슬라이드 주법에는 기본 슬라이드, 역 슬라이드, 힐 토 주법이 있으며 각각의 주법에 따른 난이도와 움직임, 특징에 대해 분석한다.

2.1 베이스드럼 싱글 스트로크

베이스드럼 싱글스트로크는 일정한 간격으로 한 번씩 연주하는 주법을 가리키며 그 종류에는 힐 업, 힐 다운 주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BPM 40~140 정도에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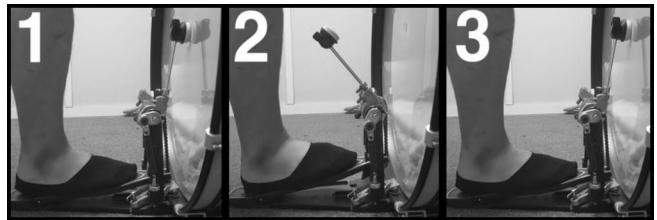
2.1.1 힐 업 주법



[그림 1] 힐 업 주법의 연결 동작

힐 업 주법의 기본자세는 페달의 2/3 정도 오른발 전족부와 중족부로 밟고 뒤꿈치를 뗀 후 페달의 비터를 헤드에 붙인 상태에서 시작한다. 다음 다리 전체를 듣다는 생각으로 엄지발가락만 페달에 붙어 있을 만큼 뒤꿈치를 뗈다. 그리고 전족부를 사용해 찍어 누르듯이 밟은 후 본래의 기본자세로 돌아온다. 힐 업 주법의 특징은 기본적인 소리가 크게 나고 명확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주로 모든 장르에서 다양하게 쓰이며 대부분의 드럼 연주자들이 힐 업 주법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다.

2.1.2 힐 다운 주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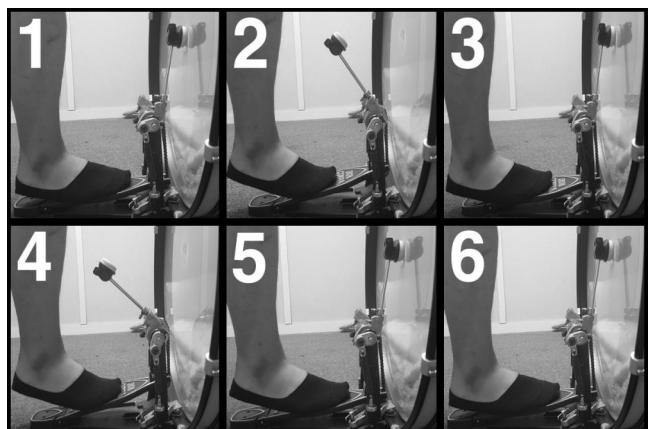
[그림 2] 힐 다운 주법의 연결 동작

힐 다운 주법의 기본자세는 페달에 오른발 전체를 올려놓으며 뒤꿈치는 떼지 않는다. 위치는 힐 업 주법과 동일하게 2/3 정도에 위치하며 페달의 비터는 헤드에 붙인 상태에서 시작한다. 힐 업과는 달리 다리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발목만을 사용한다. 다음 뒤꿈치는 붙어 있는 상태에서 전족부와 중족부 만을 움직여 밟고 본래의 기본자세로 돌아온다. 일부 연주자들은 스트로크 후 비터를 떼 베이스 드럼의 울림을 극대화시키기도 한다. 힐 다운 주법의 특징은 다리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발목만을 사용해 동작에 딜레이가 적어 입문자들이 연주하기 쉬우며 기본적인 소리가 작게 나오고 부드럽다는 것이다. 주로 스탠다드 재즈나 볼륨이 작은 음악에서 쓰인다.

3.1 베이스드럼 더블 스트로크

베이스드럼 더블 스트로크는 일정한 간격으로 두 번씩 연주하는 주법을 가리키며 주로 쓰이는 주법은 슬라이드 주법이 있다. 슬라이드 주법이란 발이 페달을 밀듯이 연주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일반적으로 BPM 120이상의 빠른 음악에서 사용되는 주법이지만 연주자에 따라 더 낮은, 더 높은 템포 부터 사용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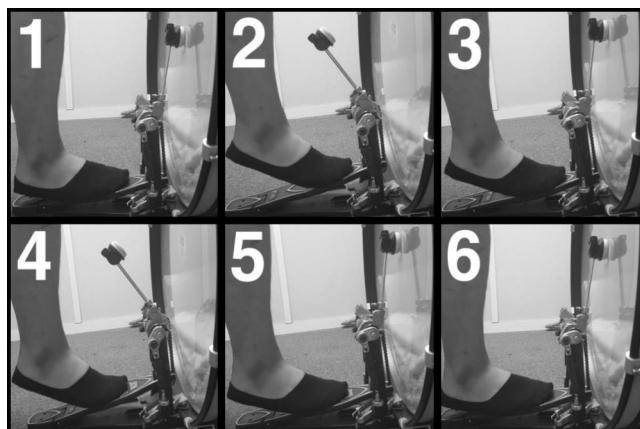
3.1.1 기본 슬라이드 주법



[그림 3] 슬라이드 주법의 연결 동작

기본 슬라이드 주법의 기본자세는 힐 업 주법과 동일하다. 2/3 정도의 위치에서 뒤크치를 떼고 1/2 위치로 발이 내려 온 후 첫 스트로크를 한다. 다음 첫 스트로크의 반동으로 비터가 떨어진 후 바로 발을 앞으로 밀듯이 두 번째 스트로크를 하여 기본자세를 했던 위치로 되돌아온다. 슬라이드 주법 중 가장 난이도가 쉬우며 대다수의 드럼 연주자들이 기본 슬라이드 주법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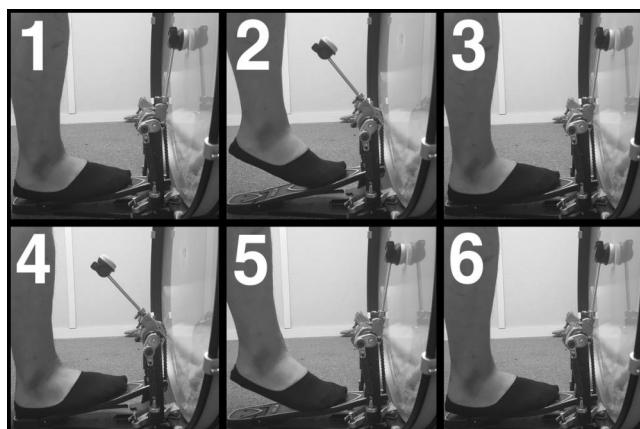
3.1.2 역 슬라이드 주법



[그림 4] 역 슬라이드 주법의 연결 동작

역 슬라이드 주법의 기본자세 또한 힐 업 주법과 동일하다. 2/3 정도의 위치에서 뒤크치를 떼고 4/5 위치로 발이 올라간 후 첫 스트로크를 한다. 다음 첫 스트로크의 반동으로 비터가 떨어진 후 바로 발바닥을 뒤로 당기듯이 두 번째 스트로크를 하여 기본자세를 했던 위치로 되돌아온다. 역 슬라이드 주법은 다른 슬라이드 주법에 비해 첫 스트로크 보다 두 번째 스트로크의 소리가 큰 편이기 때문에 첫 스트로크와 두 번째 스트로크의 소리를 균등하게 맞추는 연습이 필요하다.

3.1.3 힐 토 주법



[그림 5] 힐 토 주법의 연결 동작

힐 토 주법에서 힐이란 발바닥의 후족부에 위치한 뒤크치를 말하며, 토란 발바닥의 전족부에 위치한 발가락 부분을 의미한다. 기본자세는 힐 업 주법과 동일하다. 2/3 정도의 위치에서 뒤크치를 떼고 중족부와 후족부의 경계 부분으로 첫 스트로크를 하고 난 후 뒤크치를 붙인다. 다음 첫 스트로크의 반동으로 비터가 떨어진 후 바로 뒤크치를 띄우며 전족부를 사용해 두 번째 스트로크를 하고 기본자세로 돌아온다. 힐 토 주법은 슬라이드 주법들 중 가장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사용하는 연주자 또한 가장 적다.

3. 결론

본 논문은 베이스 드럼의 연주법을 싱글 스트로크, 더블 스트로크로 분류하여 각각의 난이도와 움직임,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각각의 움직임에 따라 다리와 발의 사용하는 근육과 위치가 다르며 난이도 또한 차이를 보였다. 싱글 스트로크의 힐 업, 힐 다운 주법은 뒤크치 움직임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점이었으며 더블 스트로크의 기본, 역 슬라이드, 힐 토 주법은 뒤크치를 포함해 발 전체의 움직임과 폐달의 밟는 위치에도 차이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연주법들은 연주자가 현재까지 습득했던 연습 방법, 연습량, 습관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주법만 오롯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법들을 연구하고 이해하여 연주자에 더 잘 맞는 연주법을 파악한다면 한층 더 발전된 연주 능력을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1] Wikipedia Bass Drum, Heel-toe technique
- [2] <https://drummagazine.com/>
- [3] <https://www.moderndrummer.com/>
- [4] 과풀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